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성윤숙*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중도탈락과정과 중퇴 이후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고 사회적 맥락의 수준에서 학교중도탈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예비면접, 주제보자와의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퇴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학생의 중퇴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중도탈락 청소년을 짙린 청소년과 때려친 청소년으로 유형화하여 중도탈락 과정을 살펴보고, 중도탈락이후의 삶의 적응과정을 중도탈락 유형에 따라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중도탈락 과정의 위기적 사건 또는 결정적 계기, 기질, 강화, 촉진, 종결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중도탈락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교사의 지지부족: 무책임한 교사, 또래집단과의 비동질성: “애들이 싫어하는데요”, 유해환경에 노출, 청소년 지지 환경 부족: 상담교사의 의미적 부재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중퇴, 중도탈락과정, 중도탈락 적응과정,
문화기술적 연구, 질적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I. 문제 제기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가지 않거나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중도탈락 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작게는 1.3%에서 크게는 2.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교육통계연보, 1983-2002). 이 중 최근 5년간 학생들의 중도탈락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눈에 띄고 있는 점이 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사’라는 이유로 통합 처리되었던 학생들이 품행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사유가 따로 분리되어 높은 비율(26.8%~31.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교육통계연보, 1983-2002). 즉,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품행’과 ‘학교 부적응’이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중퇴는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기가 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자식들의 높은 학업성취가 그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학습방법이나 입시문제에 비해 청소년들의 학교중퇴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학교중도탈락의 현상이 학업중퇴, 학교공포증, 등교거부, 학교거부, 중도포기 등 각 사회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조혜정, 1997), 이는 결국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며, 다변적인 현상인 것이다(황창순, 1996).

국내 청소년의 학교중퇴에 대한 연구방향은 주로 중퇴의 원인 및 요인(표갑수, 1993; 김경식, 1997; 박영숙, 1999; 이경림, 2000; 윤영선, 2000; 문미자, 2000), 중퇴 청소년의 적응 요인(고성희, 1999; 윤영선, 2000; 이소영, 2000; 오현애, 2002; 양국선, 2001), 청소년 중퇴 예방(정지인, 1997; 이복

현, 2001),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박창남 외,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질문지 등을 통한 양적연구가 대부분이고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 연구들은 비행을 경험한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와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을 뿐,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즉 청소년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교중도탈락을 하게 되었으며, 중도탈락 이후 적응상의 어려움,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복지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요즘 잠재적 중도탈락이 학교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주제이다. 잠재적 중도탈락은 학교중퇴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재의 학교중퇴생보다도 잠재적 중도탈락생이 더 중요할 수 있다(조아미, 2002). 하지만 현재 중퇴 청소년들의 심층면담을 통한 중퇴 요인 분석과 실생활, 비행과 중퇴의 관계 등이 선행되어 밝혀지지 못한다면 잠재적인 중퇴 청소년들 역시 예방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심층 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분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이 다변인적이고 복합적인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청소년의 중도탈락과정과 중퇴 이후의 적응과정을 알아보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맥락 속의 의미를 이해하여 학교중도탈락이라는 현상에 걸쳐있는 맥락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중도탈락의 요인

중도탈락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엇갈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을 대체로 개인요인(individual factors), 가정요인(family factors), 학교요인(school factors), 교우관계요인(peer factors), 지역사회요인(communitary factors)으로 나누었으며 이 요인들을 다시 각각 여러 개의 하위요인으로 세분한 연구들도 있다.

위의 연구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중도탈락의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표갑수(1993)는 중퇴 요인으로 개인의 문제행동, 가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반사회적태도 요인, 학교교육목적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학업중퇴 요인을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김순규(2002)는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개인요인으로 나누었는데, 개인요인은 다시 심리적 요인, 가치 그리고 행동요인으로 분류했다. 이중 행동요인은 비행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요인으로 구분(표갑수, 1993)하기도 하고 개인요인에 포함시켜(이숙영 외, 1997; 유성경 외, 1998) 설명하기도 한다. 중도탈락 결정에 작용하는 개인요인은 중도탈락을 하는 개개 학생의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s), 지각적 오리엔테이션(perceptual orientation) 및 행동 경향성(behavioral tendencies)을 비롯하여 그 학생의 건강상태(질병), 임신, 결혼, 흡연, 음주, 약물중독 등도 이 유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아미(2002)는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개인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교중도탈락의 요인 중 가정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요인이란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요인을 말한다. SES 요인 군, 결혼 요인 군, 양육태도 요인

군, 가정 분위기 요인 군, 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태도 요인 군으로 나누어진다.

가정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가족의 역할기능은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과 관련요인으로 작용한다(이숙영 외, 1997; 박수민, 1998; 유성경 · 이소래, 1998; 이경림, 2000).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나 계부 혹은 계모와 같은 가족 구조상의 결손이 있을 때 학교중도탈락률이 높으며(이숙영 외, 1997; 유성경 · 이소래, 1998; 이경림, 2000), 이러한 경향은 구조적 결손가족의 지리적 이동성이 높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유성경 · 이소래, 1998; Astone & McLanahan, 1994). 또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여유있는 가정의 청소년의 중도탈락률보다 두배정도 높다(유성경 · 이소래, 1998; Franklin, 1992).

그러나 과거 학교중도탈락의 문제는 대부분 결손과정이나 경제적 빈곤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1997; 김정식, 1997b). 즉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학교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숙영 외, 1997; 유성경 · 이소래, 1998).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모의 지나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과잉보호, 과도한 성취기대도 학교중도탈락 관련요인으로 지적된다(이숙영외, 1997; 김정식, 1998a). 한편 부모의 높은 교육적 관심은 일반 재학생이나 중도탈락생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교성적에 대한 관심은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부모가 재학생 보다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식, 1998b).

또한 학교중도탈락은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가족에게 위기경험으로서 자녀의 학교중도탈락으로 인한 절망감과 실패감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즉 자녀가 학교중도탈락을 하면,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으로 단정하여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며, 형제들은 학교중도탈락 청소년과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된다(이숙영 외, 1997).

학교요인은 학교체제 또는 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과 학생 개인의 학교에 대한 태도 및 학교 생활의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학교조직과 분위기, 학교규율과 교육과정 운영, 폐쇄적인 학교 구조, 학교풍토, 교사의 질, 중도탈락 결정과정의 비체계성, 통제적 분위기, 교육적 기능 약화 등은 학교체제와 관련된 요인이다. 학교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환경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1996년에 5개 시도 중·고등학생 2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36.1%의 학생이 한 번 이상 중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중퇴 충동을 느낀 이유는 '학교가 재미없어서'가 63.6%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성적' (43.1%), 가정 불화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생활에 불만스러운 점에 대한 응답은 1위 '엄격한 학교의 규칙 및 규율', 2위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차별대우', 3위 '신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의 훈육방식', 4위 '입시교육 위주의 학교 분위기', 5위 '성적 우수 학생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나타났다(교육부, 1997).

이를 종합해 볼 때, 학교중도탈락의 가장 큰 원인을 '학교문제'에 두고 있다. 학교생활이 불만스러운 재학생들도 동기만 주어진다면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중도탈락자로 예견할 수 있다.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경험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거부되었다고 느끼거나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학교 생활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 또한 학교생활의 성취에 대한 동기화가 부족하여 의지가 없고 자포자기적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불안하다(유성경 · 이소래, 1998). 또한 권위체제에 대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

지며, 교칙 등에 반항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또래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이숙영 외, 1997).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학교교육의 위기 현상은 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 현상에 대한 전통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학교 밖의 대안을 찾아 자발적으로 중퇴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에서의 이탈 현상은 학교교육이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나 신뢰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혜영, 2001).

지역사회요인은 중도탈락을 자극하는 향락 산업으로 인한 유해환경, 지역성인과의 유대관계 등이 포함된다. 학교 주변이나 집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향락업소 및 컴퓨터 게임방, 오락실,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지역사회 특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대신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밤늦게 까지 방황이 가능하며 외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중도탈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윤미경, 2002).

지역사회요인은 유해환경과 우범지역 거주를 ‘거주지역 환경요인 군’으로, 사회적 지지와 성인과의 유대를 ‘지역 성인과의 관계요인 군’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 관련요인은 학교나 가정이 청소년들의 학교중도탈락에 있어 방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에는 이들을 흡입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유흥 및 향락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향락산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출과 비행, 중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재미와 의미를 상실한 청소년들이 일단 향락문화에 접촉하면 일시적인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고, 숙식 해결이 가능하게 되면 가출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가출의 장기화는 학교중도탈락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숙영 외,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한편 대중문화 지향적인 청소년 중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그림, 만화 등의 활동에 몰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학교공부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이혜영, 2001).

또 다른 요인으로 정보화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 사이버 공간이 계속 확대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학교 이외의 다양한 학습 공간이 등장하게 될 것이므로 학교가 학습조직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이버 세계와 친화적인 신세대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가치관을 유포시킬 가능성이 크다(이혜영, 2001).

이 외에도 학교 밖, 지역사회에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가속시키는 부정적인 또래집단의 존재가 학교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이나 학교와 유대관계가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유일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거나 비행, 범죄를 저질러 학교중도탈락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범죄율(중도탈락범죄자/중도탈락생)은 1981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10명중 3명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학교중도탈락은 사회적 비행과의 연관성이 증대되고 있다(교육부, 1997; 이숙영 외, 1997).

학교중도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집합적 수준에서도 국가나 사회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결과로 정치참여 감소와 무관심, 사회범죄의 증가, 직업안정 파괴, 세대간 교류의 감소 및 문화단절 등과 같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송복 외, 1996; 권현진, 1997; 정지인, 1997; Levin, 1972; Levine, 1984; Rumberger, 1987). 이중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연구에 따르면 선생님에 대한 혐오도와 자신이 느끼는 공부

압력,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정도, 학교생활에서의 태학(지각, 조퇴, 결석), 비행경험친구, 그리고 처벌경험친구라는 요인이 학생들의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의 직접적인 계기가 비행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창남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탈락을 고려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음주, 흡연, 가출, 성관계, 약물흡입, 자살충동, 경찰에 잡혀본 경험이 많았다. 학생들의 학교부적응과 품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요인과 비행이 청소년들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2. 학교중도탈락유형과 적응

본 연구의 심층면접 과정에서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은 중퇴라는 용어보다 자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은 비행과의 연관성 유무를 떠나 자퇴처리의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반영 여부에 따라 학교를 찢림과 때려침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정체화 방식은 김혜영(2002)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제보자로 선정된 7명의 청소년들은 똑같이 자퇴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몇 명은 장기 무단결석으로 자퇴 처리했지만 학교에서 짜른 것이고, 한명은 중도탈락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그만 둔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의 경우를 찢린 청소년, 후자의 경우를 때려친 청소년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중도탈락 청소년을 유형을 나누어 구분한 후 중퇴 이후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면 정착형,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면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중퇴이후의 생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김경식, 1998; 박수민, 1997; Murane, Willet, and Boudett, 1999; Prause and Dolley, 1997). 중퇴 이후의 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중퇴행위가 때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Levin, 1992; 최보문, 2000), 학

문의 성취수준의 저하와 함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무위도식하거나 사회적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김경식, 1998; 김현주, 2002).

학교중도탈락은 개인으로서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문화 속에서의 청소년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기가 지나는 독특한 발달적 특징에 의해 청소년의 생활세계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Lerner, 1994).

동일한 환경적 맥락이라고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라 그 상호작용은 달라질 수 있다(송명자, 1995). 그러므로 생태체계적 관점은 학교중도탈락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학교, 가족,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환경체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과 상호교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여 준다(김동배·권중돈, 2001; NASW, 199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체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송복 외, 1996; 김선희, 1997; 이숙영 외, 1997; 유성경이소래, 1998). 학교중도탈락의 유형은 학교중도탈락과 개별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중도탈락 현상이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 청소년 비행, 낮은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탈행동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시각에 대한 이해와 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김혜영, 2002).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자는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삶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달해줄 학교중도탈락을 경험한 청소년들만을 의도적으로 표집하기 위해 비확률표

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에 의해 지역과 중도탈락 기간 및 유형, 연령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접촉하여 이들로 부터 친구들을 하나 둘씩 소개받아 표본을 확대해 나가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20명의 중도탈락 청소년들과의 예비 면접 자료를 분석한 후,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사회적 맥락을 보다 잘 드러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주 제보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주제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청소년상담자, 주변에 학교를 그만 둔 친구가 있는 학생들과 주제보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상의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2002년 12월에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들 중 중퇴이후 직업기술학교에 들어간 내담자 2명과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알게된 중도탈락 청소년 5명을 면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표본추출에 적당하고, 연구목적에 동의하며, 심층면접에 참여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했으므로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주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주제보자의 특성

내담자 인적 사항	이름	성별 및 연령	학년	현재 상황	성적	지역	부모님의 직업
	이재진	남, 만 16세	중3 중퇴	직업기술학 교 재학 중	하위권	울산	부(어업), 모(생사여부를 모름)
	박진호	남, 만 16세	중3 중퇴	직업기술학 교 재학 중	하위권	울산	부(사망), 모(무직)
	정인수	남, 만 18세	고2 중퇴	무직	하위권	서울	부(사업), 모(주부)
	이은미	여, 만 18세	중2 중퇴	유흥업소	하위권	서울	부(누군지 모름), 모(술집)
	김정화	여, 만 18세	고1 자퇴	보호 관찰소	하위권	울산	부(자영업), 모(식당)
	고영희	여, 만 19세	고2 자퇴	대학재학	상위권	서울	부(건축업), 모(주부)

* 위 이름은 가명임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문화기술적 접근은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사회적 맥락과 청소년들 자신의 의미 창출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중도탈락 청소년들의 중퇴과정과 중퇴 후의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면담조사와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질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하여 2004년 5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먼저 예비면접 과정에서 중도탈락한 청소년들에게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주고 중도탈락 이유, 중도탈락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 중도탈락 이전과 이후의 생활 등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취한 연구자는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 장면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주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10~15회 진행되었다. 주제보자들의 심층면접은 개별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개별면접과 함께 집단면접도 진행하였다. 주제보자들에 대한 참여관찰은 5회에 걸쳐 주 제보자들이 이용하는 커피전문점, 단골 게임방,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하는 주변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렇듯 제보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 하는 일을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는 각 개인의 개인적 관심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면접 내용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새로운 느낌들을 현장노트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이것을 자료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현장 노트를 읽을 때마다 면담장소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연구자의 생각, 느낌, 연상되는 비유나 속담을 포함한 일차적인 해석을 적고 검토하였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제보자의 행동이나 표정 등도 빼먹지 않도록 반복 녹취하였다. 녹취 도중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오거나 말의 의도가 불

분명한 경우, 또는 잘 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 메일 등을 이용하여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하여 현장 노트를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핵심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웹(web)을 만들었다. 자료의 범주화에서 주제영역 분류를 중퇴 이전의 비행, 중퇴 이후의 비행, 중퇴 전·후의 실제 생활상, 중퇴 동기, 중퇴 전·후의 청소년의 심리, 가정체계, 지역사회체계, 사회적지지망 등으로 상·하위 범주들을 나누고 이를 범주로 전환한 뒤 현장노트에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코딩작업을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표기된 부호와 범주의 수대로 현장노트를 복사해서 범주별로 정리한 뒤 동일 범주의 사례들을 읽어가며 해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쫓린 청소년’이 되기까지

1) 정착형(취업형)

(1) 결정적 계기: 비행

은미의 중도탈락은 비행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중2때 중퇴를 했는데 그 전부터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밤이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밤에 폭주를 즐겼고, 무리를 지어서 패싸움을 했다고 했다. 밤 생활과 친구들과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결석하는 날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사고만 치는 은미를 자퇴처리하게 된 것이다.

연구자: 학창시절에 주로 무엇을 하며 놀았어요?

은 미: 주로 아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담배도 켜고, 밤이 되면 폭주를 뛰기도 하고 다른 학교나 지역의 아이들과 패싸움을 하기도 했어요.

(2)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은미는 주변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어린 시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고 했다.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은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조절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당면한 문제를 의식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은미는 장기무단결석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 자기통제력 부족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자퇴를 하기 전 생활은 어떠했는지요?

은 미: 자퇴 전에도 노는 건 똑같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빠지긴 했지만 학교에 다니곤 했죠. 하지만 수업에는 잘 참여하지 않았고, 곧잘 땡땡이를 치곤했어요.

(3) 강화: 방임적인 양육태도

은미의 경제적 사정은 늘 어려웠으며, 주거 환경이 유흥가 주변이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은 미: 작은 술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했어요. 어머니조차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 채 성장했으며, 주위에 가까운 친척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저녁때면 집을 비우는 일이 당연스레 이어졌으며, 그로 인해 어머니와의 대화가 단절되었죠.

연구자: 자퇴당시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나요?

은 미: 엄마는 원래 내 생활에 무관심했기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중학교 시절, 가출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비행 행동이 잦았으나 그에 대해 어머니는 늘 무관심했어요.

(4) 촉진: 잦은 가출

은미는 학교를 다닐 때에도 가출을 자주 했었고 자퇴 후에는 부모님과
의 사이가 더 어색해져서 가출을 했다고 했다.

연구자: 왜 자퇴 후 가출을 했었어요?

은 미: 학교를 다닐 때에도 원래 가출은 자주 했었죠. 자퇴 후 부모님과 사
이가 더 어색해지고, 집에서 지낼 이유가 없어졌어요.

(5) 종결: ‘잘림’

은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에 무단 결석하게 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잘린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구자: 자퇴를 하게 된 계기는?

은 미: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요.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6) 중도탈락 이후의 삶

은미는 중도탈락 이후에 생활은 너무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의 연속
이었다고 했다. 주변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낙인찍힌
느낌이라고 했다. 자퇴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보다는 자기 또래의 친구
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러웠다고 했다. 계속해서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일을 찾았는데 중학교 중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유
흥업소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어서 유흥업소에 취직했다고 했다. 앞으로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고 했다.

연구자: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은?

은 미: 우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2) 비정착형

(1) 결정적 계기: 비행 또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장기결석

인수는 자신이 사춘기 때 잘못 만난 친구들로 인해서 많이 변했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심장수술을 해서 몸이 굉장히 약해서 부모님이 되도록이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자신도 예전에는 공부도 곧잘 했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시키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그것에 완전히 질려서 점점 공부하고는 답을 쌓고 밖으로 나돌게 되었다고 했다. 인수는 게임을 하면서 무단결석을 너무 많이 해서 결국에는 자퇴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인 수: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엉망인 애들이라 쉽게 물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공부만 안했을 뿐, 그렇게 심한 사고는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어요. 가출 세 네 번과 절도와 폭력으로 경찰소로 넘어가 재판에서 보호관찰로 넘어간 적도 있고 오토바이에 미친 적도 있는데 이건 그냥 재미 삼아서 잠깐 했어요. 귀걸이, 담배, 술, 양아치 흉내는 다 냈고, 집에 있는 엄마 패물들을 전부 몰래 팔아 버린 적도 있었어요.

(2)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청소년들은 자신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 자기통제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을 하게 하며,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경림, 2000). 인수는 게임을 안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월할까봐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금단현상이 나타나고, 게임 시나리오 자체에 내재된 메카니즘이 강력하여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만족을 얻게 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점차 사용시간을 늘려야 하는 내성이 생겨 게임

이용의 조절능력이 상실됨으로써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고 했다. 인수도 온라인게임이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일상생활 자체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힘들다고 했다.

연구자: 게임방 이용을 스스로 자제해 본적 있어요?

인 수: 생각만... 불가능해요. 질릴 때까지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근데 어떨 땐 밥도 안먹고 살이 쭉쭉 빠져서 얼굴이 해골이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서 게임방을 자중할 때도 있죠. 어쩌다 밥 먹음 라면 한끼니... 이젠 그런 생활 못버티겠어요.

(3) 강화: 방임적 양육태도

인수의 부모님은 인수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공부를 시켜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머니의 강요에 질려서 사고도 많이 치고, 공부도 하지 않고 반항해도 예전처럼 강요하거나 통제를 하지 못하신다고 했다. 어머니는 인수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싸고 누워서 죽겠다고 하셨는데, 게임에 미쳐서 학교도 안가고 게임방에 사니까 역정도 많이 내셨지만, 나중에는 좋게 타이르면서 잔소리만 조금하면서 제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래도 자신이 전혀 말을 안듣고 게임에 미쳐 살기 때문에 질릴 때까지 해 보라고 놔두시는 것 같다고 했다. 사고를 많이 쳐도 한번도 아버지께 맞은 적이 없고, 항상 대화를 많이 해 주고, 아버지의 사정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뼈저리게 말씀한다고 했다. 인수는 아버지의 훈계가 잔소리로 들려 짜증난다고 했다. 인수는 게임을 하면서 성격이 다혈질로 변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뜻대로 해 주지 않으면 물건을 막 던지고, 어머니께 대들고, 게임방비 달라고 발광을 해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인수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했다. 인수의 어머니는 인수가 학교 자퇴결정을 반대할 때에 예상되는 반항이 두려웠고, 인수의 선택을 따라 줌으로써 인수와 부모와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고 인수가 게임

에 질려서 그만두기를 바랄 뿐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인수의 부모는 인수가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를 기대하지만, 게임에 중독된 폐인이 다 되어서 이젠 거의 포기상태이고, 그래도 예전처럼 사고를 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했다. 인수는 게임으로 인해 건강도 너무 많이 나빠졌고, 성격도 이상하게 변하고, 거의 게임방에서 라면 한 끼로 때우면서 생활하고, 중퇴한 친구를 데리고 와 집에서 함께 살게 하고, 가끔씩 집에 들어 오지만 누구도 인수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인수의 가족은 인수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이 심했고, 이젠 너무 지쳐서 인수가 원하는 대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연구자: 그럼 부모님이 왜 싫어 하는 것 같아요? 게임방가는걸요?

인 수: 돈 많이 들어 가고, 몸이 상하는게 눈에 보이니까요. 성격 이상해지고, 당연히 못마땅하죠. 학교도 때려치고 켜방에서 사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연구자: 그럼 게임방 못가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인 수: 못가게 한 적 없어요. 내 성격 다 알아요. 설교를 하지만 듣지 않죠. 질릴 때 까지 기다리는 눈치예요.

연구자: 평소에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 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식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안보여 주세요. 특히 아빠. 가끔 나를 두고 설교를 하시지만, 귀에 잘 안들어 와요. 엄마는 개방적이에요. 제 성격을 잘 알거니와, 이미 나한테 질려 있어요. 정신차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4) 촉진: 게임중독

인수에게 게임에 빠지게 된 이유를 물으니깐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 중독이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위약에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하고, 뭐 하나에 빠지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미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해서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많은 게임들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거기에 미쳐 산다고 했다. 리니지는 1년 반 했고, 리니지 말고 모든 게임을 거의 다 했다고 하는데, 스타크래프트나 포트리스 같은 인기있는 게임은 거의 다 섭렵했다고 했다. 리니지는 특히나 단시간에 빠져서 한 것 같고, 공을 많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빠진다고 했다.

연구자: 일주일에 평균 몇 회 정도 게임방을 이용해요?

인 수: 일주일 내내 게임방에서 살아요.

연구자: 1회 이용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인 수: 한 보통은 10시간, 게임이 재미있으면 24시간 풀가동이죠.

(5) 종결: ‘짤림’

인수는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중퇴를 했다. 인수는 리니지의 나쁜 점은 자기의 본업에서 떨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고등학생이 학교 자퇴하게 되는 이유 중에 리니지 때문도 많다고 했다. 인수는 게임에 빠져 학교를 자주 결석하다 보니 무단결석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했다. 건강의 약화와 카드빚에 쫓기지만 학교도 그만 둔 상태고 딱히 할 일도 없어서 게임방에서 산다고 했다. 인수는 중퇴한 친구와 함께 리니지 게임을 하고 그 친구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연구자: 게임하다가 학원 안간 적 있어요?

인 수: 거의 안가요. 때려쳤죠.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은 사회활동을 중단하게 만든다.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집도 가지 않게 되고, 화장실 가는 일, 친구와의 교제, 공부 등을 기피하고 오로지 게임에만 매달리게 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6) 중도탈락 이후의 삶

인수는 게임에 빠져 학교를 자주 결석하다 보니 무단결석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했다. 지나치게 게임에 몰입하다보니 밥도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라면을 먹기 때문에 살이 너무 빠져 46kg까지 나간 적이 있고, 이젠 얼굴이 해골이 다 되었다고 했다. 인수는 잠도 안자고 게임방에 가면 평균적으로 담배 두 갑 정도를 피고, 이젠 소변도 너무 참아서 방광에 무리가 오고, 수전증까지 생겨 병원에도 다녀왔고,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게임방을 끊지 못한다고 했다. 인수는 자신은 공부 못해도 게임은 자신있고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집도 가지 않게 되었다. 인수는 중도탈락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이 사회에서 직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국 졸업장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고, 졸업장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다.

연구자: 게임방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인 수: 한심해 보여요. 누구든 나만 따라다니면 금방 폐인 만들 수 있어요.

연구자: 앞으로 게임방 언제까지 갈거예요?

인 수: 겜방은 자기가 질릴 때까지는 절대 못 끊어요.

연구자: 지금의 삶에 만족하나요?

인 수: 아뇨,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니 취직도 안되고 게임이라도 해서 돈벌어야죠.

2. ‘때려친 청소년’이 되기까지

1) 정착형(진학형)

(1) 결정적 계기: 대학입시를 위해

영희는 전학을 간 뒤 학교수준이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

기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 자퇴를 한 경우이다. 영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지원했는데 내신관리 때문에 수능에 전념하지 못해 차라리 자퇴를 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자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뭐예요?

영희: 그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원하는 진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인문계열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수I까지 배워야했고, 내신에도 신경 써야 했어요. 내신 관리하느라고 수능에 전념하지 못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때는 내신 성적 관리하느라 정신없이 보냈고요. 이렇듯 대학 입시를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학교 교육 과정과 일치하지 않아 힘들었고, 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퇴를 하여 제가 필요한 공부만을 골라서 하는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또 자퇴를 하게 된 부차적 이유는 분당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교육열이 치열하고 학생들 수준도 높은 학교에서 서울 ○○여고로 전학간 뒤, 학교 수준이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차라리 재수학원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어요.

(2) 기질: 자존심이 강한 아이

자퇴당시 영희는 도전정신과 승부욕에 가득차 있었고 꼭 해내겠다는 자신감에 넘쳐있었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당시 자신의 성격이 어떠했어요?

영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평소에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정신과 승부욕에 가득 차 있었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봐서라도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3) 강화: 민주적인 양육태도

영희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었고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것

을 하라'고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모두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자퇴 당시에도 부모님은 한 번 세운 고집은 꺾지 않는 영희의 성격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주셨으며 적극 후원해주셨다고 했다.

연구자: 평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영희: 건축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집안은 항상 부족함 없었어요. 한번 사업이 기울어졌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다른 집에 비한다면 그때도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것을 하라'며 원하는 것을 모두 배울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때문에 바이올린·피아노·미술부터 국영수 과외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이셨지만, 집에서 하는 내 행동들에 대해 하나 하나 간섭하시는 일이 없었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고, 동생과의 관계도 좋아요. 1주일에 한번 이상은 외식을 하며 가족 회의를 열어서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연구자: 자퇴할 당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영희: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며 믿고 격려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 한번 하겠다고 다짐한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 성격을 알고 스스로 하게끔 해주셨어요. 또한 해보고 싶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적극 후원해주셨어요.

(4) 촉진: 주위사람들의 신뢰와 적극적 후원

부모님 뿐 아니라 영희가 자퇴할 당시 학교 교사였던 외삼촌도 필요하다면 자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들던 영희가 자퇴하는 것을 섭섭해 했으나 나중에는 친구들과 선생님도 믿고 후원해주셨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당시 주변상황과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영희: 학교 교사이신 외삼촌도 자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고,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며 믿고 격려

해주셨어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자퇴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고 대인 관계도 좋았고 자퇴는 ‘문제 학생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풍조였기 때문에 처음에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당황해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믿고 맡겨주는 후원자가 되었어요.

(5) 종결: 자퇴는 도피가 아니 도전

영희는 자퇴를 도피가 아닌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차피 대학 갈 거 왜 자퇴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의지만 뚜렷하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경험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했다.

연구자: 자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영희: 자퇴는 도피가 아닌 도전이에요. 목표가 확실하고 자신의 의지가 뚜렷하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인생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며 “어차피 대학 갈 거 왜 쓸데없이 자퇴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과정은 틀리기 때문이죠. 그 틀린 과정 속에서 얻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경험들은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보물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자퇴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6) 중도탈락 이후의 삶

영희는 자퇴이후 입시준비를 위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했다. 2월에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일반 고3들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미술학원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으며 학교 일정에 따라가지 않아 수능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영희는 목표가 뚜렷했고, 입시를 위한 자퇴였기 때문에 생활이 흐트러진 일이 없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후의 생활은 어땠어요?

영 회: 10월에 자퇴한 이후, 이듬해 2월까지 미술학원에서 하루 종일 있었고, 집에서 혼자 정리하며 수능 공부를 했어요. 2월에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일반 고3들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며, 필요한 만큼 공부하고 미술학원에서 남은 시간을 보냈죠. 다른 학생들과 다른 것이라면 내신(중간·기말고사) 준비가 필요 없어서 수능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목표가 뚜렷했고, 입시를 위한 자퇴였기 때문에 생활이 흐트러진다고 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죠.

영회는 자퇴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비주류의 이색적 경험에 대해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다. 영회는 대학입시를 보았는데 비록 서울대학교 미대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자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그 후 이화여대 법대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또한 자퇴 당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우며 혼자 공부했던 것이 대학 와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연구자: 자퇴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나요?

영 회: 후회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퇴를 하면 대인관계가 단절된다고 걱정하기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1년 학교 다니지 않는다고 인간관계가 영영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사회에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지금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학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또한 자퇴생이란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비주류라는 데서 오는 경험도 많았죠. 자퇴 이후 내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율적 시간 관리에 빨리 익숙해졌고, 자신의 주관을 믿게 되었으며, 학교를 벗어났다는 이색적 경험도 할 수 있었어요. 자퇴 후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꽤 재미있었어요.

영 회: 그 해에 서울대 미대를 떨어진 후, 재수·삼수를 해도 서울대학교를 간다는 보장이 없고, 생업으로 미술을 삼으면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수I 과외를 하며 03년도 수능 인문계열을 목표로 다시 준비했죠. 비록 서울대학교 미대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자퇴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또한 자퇴 당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우

며 혼자 공부했던 것이 대학 와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여 현재 매 학기 등록금의 ⅔
를 장학금으로 받으며 사법고시를 준비중이에요.

2) 정착형(취업준비형)

(1) 결정적 계기: 비행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

진호와 재진이가 학교 중도탈락의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놀고 싶고,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중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동일한 답변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
이었고, 그 말은 나중에도 반복되었다.

연구자: 학교를 그만둘 당시 집안 사정이 안좋았나요?

진 호: 힘든건 없었어요.

연구자: 그럼 부모님과 관계가 안좋았어요?

진 호: (멋쩍게 웃으며) 관계 좋았는데..

연구자: 관계 좋았는데 왜 학교를 그만뒀어요? 선생님과 관계가 안좋았던거
예요?

진 호: 친구들과하고요.

진 호: 사춘기때. 방황이에요 방황.

연구자: 학교를 그만 둘 때 때 집안 사정이 어땠나요 ?

재 진: 나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재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였고, 흡연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였다. 흡연에 대해서는 비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음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각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몸에 해로우
므로 이제 금연을 하겠다고 했고, 흡연과 음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
었지만 가끔 연구자에게 하는 전화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전화
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 그럼 학교 다닐 때는 원래 학교생활이 답답하다고 느낀 적 있었어요?

재 진: 아뇨.

연구자: 그럼 후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재 진: 네.

연구자: 나중에 어떤 느낌이 생긴 건데요?

재 진: 방학 때 원래 별로 안친했던 애들이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담배도 피고, 가출도 많이 해봤고, 또 가출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구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죠.

갈취 및 절도도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보다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집단이므로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자연히 증가하며, 이로 인해 함께 비행 행동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진이는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다. 친구들은 죄목이 작고, 전과가 없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 학교를 중퇴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

재 진: 애들 패고, 애들 데리고 쫓 돈 뺏고, 오토바이 훔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연구자: 강도상해 아닌가요?

재 진: 다른 건데요. 특수절도 등.

연구자: 중·고등학생 오토바이는 많이 훔친다고 하던데요?

재 진: 오토바이는 제가 훔친거 아닌데요.

연구자: 근데 왜 들어갔어요?

재 진: 다 들어갔어요.

연구자: 다요?

재 진: 네 명. 원래 6명인데요. 두 명은 안들어가고요. 네명만 들어갔어요.

연구자: 두 명은 왜 안들어갔는데요?

재 진: 죄가 작아가지고요, 전과도 없고.

사회적 요인으로 내담자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던 비행 문화가 대를 이어가며 청소년들에게 모방범죄를 유발한다.

재진이는 가출한 후 다른 청소년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거나, 빈집에 들

어가 물건을 훔치고, 공중전화기를 터는 등 여러 가지 비행으로 가출 생활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동네 아는 형들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재 진: 가출하고, 집 털고, 할말은 아니지만 (머쓱하게 웃으며) 전화기도 많이 뒤집었죠. 전화기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면 돈 나오거든요. 그 동전 넣는 공중전화기 있잖아요.

연구자: 어떻게 뒤집는데요?

재 진: 딱 뒤집었다가 세우면 돈이 나오거든요.

연구자: 그런 것 어떻게 알았어요?

재 진: 가르쳐줬는데 동네 형들이.

가출 후 비행집단간의 지위 확보와 생활유지를 위해 다시 비행에 가담하게 된다. 재진이는 비행집단에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인근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까지 비행 범위를 넓히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거나 길가의 의자에서 신문을 덮고 자는 등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였다고 했다.

연구자: 가출하고 난 뒤에 뭐했어요?

재 진: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 돈 뺏고, 아무 교회에서 자고.

재 진: 한마디로 폐인생활을 했죠.

(2)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재진이는 한 학기만 더하면 중학교 졸업인데 학교 다니기도 귀찮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자퇴를 결정했다고 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퇴를 쉽게 결정하는 것은 자기통제력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서 중퇴처리를 할 수 있나요?

재 진: 부모님이 면회와가지고, 부모님이 말해서요.

연구자: 부모님이 반대 안하셨어요?

재 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요. “괜찮겠나” 이러던데요.

재 진: 괜찮은데요. 해주십시오. 그랬죠.

연구자: 그럼 먼저 자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재 진: (고개를 끄덕임)

연구자: 선생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재 진: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죠.

연구자: 중 3이면 한 학기만 더 하면 끝나는데 굳이 자퇴를 했어야 했나요?

재 진: (고개를 끄덕임)

연구자: 왜요?

재 진: 그때 당시는 학교 다니기도 싫었고, 학교나가는 것도 짜증나고, 놀고 싶었죠

(3) 강화: 방임적인 양육태도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인 간섭을 하거나 방임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이럴 때 부모가 중요시하는 공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된다. 가령, 부모들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거나 거꾸로 기대와 관심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 더 집착을 하고 가출을 감행한다(최영신, 2000). 가출은 비행집단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고, 결국 공교육에 대한 거부로 중퇴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비행하위계층론에서 나누어지는 하층계층문화론에서 밀리는 비행청소년 발생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이 성적 모델의 동일화 과정에서 역할의 모델을 비행집단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재진이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사여부를 알지 못하며,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현재 큰어머니의 동생 집에서 거주하며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어린 시절 가정의 불화(작은 부부 싸움, 가정폭행, 어려운 가정 경제 등이 있었음)는 재진이로 하여금 가출의 원인이 되었고, 가출 후 비행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게 되었다.

연구자: 학교 그만둘 때 진호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진 호: 없었어요.

(4) 촉진: 또래동조

진호와 재진이는 주변에 중도탈락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한 같은 비행으로 인해 감옥을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간 친구들이 있다.

연구자: 왜 학교 그만뒀어요?

진 호: 그냥 재진이랑 똑같아요.

연구자: 혼자 그만 둔거예요?

진 호: 처음엔 혼자였죠. 제가 먼저 그만뒀구요, 그담부터는 친구들이 했죠.

연구자: (재진이를 바라보며) 주위에 그만둔 친구 있었어요?

재 진: 그만둔 친구는 많았어요.

연구자: 그럼 학교 다시 들어간 건 재진이 밖에 없어요?

재 진: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좀 모범생이죠.

연구자: 모범생이라서 그래요?

재 진: 새 마음 새 뜻으로!

(5) 종결: ‘때려침’

재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기 위해 자퇴를 했다고 했다. 보호관찰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사고를 쳐서 들어갔으니 부모님께 자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재진이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두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재진이는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학교를 다시 들어갔다고 했다.

연구자: 언제 중퇴를 했어요?

재 진: 중학교 3학년 7월달요.

연구자: 왜 했는데요?

재 진: (웃으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려고요. 이제. 응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려고요.

진호 : 조금만 놀다가 다시 시작할라고요.

연구자: 그럼 새 마음 새 뜻으로 학교 다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 진: 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말은요. 이제 사고를 쳐서 들어갔으니까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시작하자는거죠.

(6) 중도탈락 이후의 삶

중퇴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막상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던 때와는 달리 아침 기상과 함께 저녁 수면시간까지 마땅히 할 일이 없게 되자 반복되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게 된다.

재진이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놀러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또 다시 놀러나갔다가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했다.

연구자: 어떤 생활을 규칙적으로 했어요?

재진: (웃으며) 뭐, 노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먹고 청소 도와주고, 부모님들 어디 놀러가면 내가 집도 봐주고 또 오면 친구들이랑 놀러나갔다가, 종환이라는 친구 동네에서 놀다가, 한 여섯시 정도 되면 집에 들어가고 다섯시쯤 나오면 열시쯤 들어가고 그랬죠.

학교에 있을 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졸업장의 의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때부터 다시 학교에 들어가 졸업장을 따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재진이는 중퇴 후 졸업장을 따기 위해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고 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취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연구자: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게 어떤 의미예요?

재진: 한마디로, 졸업장.

연구자: 중퇴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재진: (잠시 침묵) 졸업장을 받으면 있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장 따면 그래도 요새는 고등학교 졸업장 있으면 취직할 수 있잖아요. 안나오면 안되고, 안나오면 이제 안되고. 그래가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무의미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학교에 있을 당시 힘들고 귀찮던 학교 생활에 대해 다시 갈망하게 되고, 현재 자신의 생활을 후회하게 된다. 재진이는 중퇴 이후 특별히 바뀐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단지 교복만 입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통해 복교를 희망했었음을 시사했다.

연구자: 학교 그만두고 후회 안했어요?

재 진: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며) 후회했어요.

연구자: 무엇 때문이에요?

재 진: 교복 입어보고 싶고, 좀 있으니까 한 달쯤 넘으니까 이제 후회가 되더라고요. (반복하며) 교복도 입어보고 싶고.... 학교도 가고 싶고. 놀면 뭐해요. 놀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연구자: 근데 왜 학교 다시 안들어갔어요?

재 진: (강한 목소리로) 들어갔어요 학교. 직업학교.

연구자: (진호를 바라보며) 어땠어요?

진 호: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때 1년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 복학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연구자: 그만둘 때 부모님이 반대 안했어요?

진 호: 내년엔 복학을 해라. 꼭 하레이.

원하던 생활과 현실의 벽을 느낀 중퇴 청소년들은 졸업장을 목적으로 또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는 규칙적으로 자신을 잡아줄 학교를 찾아서 돌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반학교에 대한 복교는 꺼리게 되는데 이는, 나이의 차이에서 오는 자존심 손상과 자아의식 수준의 차이, 자신의 과거 비행경력에 대한 수치심, 주위의 부정적인 선입견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비행경험이 있는 중퇴청소년의 경우 많은 수가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따라서 직업기술학교를 가거나 검정고시를 더욱 희망하게 된다. 결국 많은 수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요구와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입학 하게된다.

재진이는 자신이 복교를 희망하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꾸준히 계속 학교로 다시 들어갈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 그러면 학교 들어갈 때 부모님도, 이모님도 다시 들어가길 희망하신 거예요? 아니면 순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한거예요?

재 진: 희망하셔요. 저도 같라고 했었고.

연구자: 그러면 부모님은 언제쯤부터?

재 진: 부모님은 당연히 계속.

연구자: 다시 학교를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재 진: 부모님요.

재진이는 보호관찰소를 나온 후 다시 학교에 입학했다고 했다. 재진이는 학교를 재미있다고 했고 진호 역시 공부하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했다.

연구자: 학교 재미있어요? 재진이는 재미있다고 하던데.

진 호: 공부하기 딱 좋아요

연구자: 그때 멘토링 활동 안했었어요?

진 호: (고개 흔들며) 없었는데요.

재 진: 저만 했었잖아요.

연구자: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요?

재 진: 한 달에 한번.

3) 비정착형(보호관찰)

(1) 결정적 계기: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정화는 자퇴하기 전에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가지 않고 놀았다고 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은 훨씬 전부터 학교를 안갔었고,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놀다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청소년 발달상 당연하다. 하지만 그때 무작정 놀기만 한 것에 대해 지금은 많은 후회를 한다고 했다.

연구자: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는 것이 좋았다고 했는데, 뭐가 재미 있었어요?

정 화: 그 때 어렸을 때는 돈 없이 무엇을 하고 놀아도 재미있었어요. 모여 가지고 그냥 오락실 같은데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재미있고, 그다음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뒤에 가서 막 술먹고 그래도 재미있고, 뭐 그냥 그때는 돈도 많이 들고 다녔던게 아니라 몇천원 들고 다니면 어디 갈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노는게 그냥 같이 있는게 좋고 재미있고, 친구집에 가서 거기서도 지냈어요.

연구자: 뭐하고 놀았어요?

정 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있거나 그냥 심심하면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한번씩 하고, 그냥 호프집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보내니까 시간도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2) 기질: 자기통제력 부족

정화는 중퇴이전에도 친구들과 많이 놀았고, 중퇴이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먹고, 본드를 흡입하며 놀았다고 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없기도 하고 그냥 놀다보면 하루 하루 시간이 지나갔다고 했다. 정화는 자신의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자기 통제력 부족을 보였다.

연구자: 그러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는 것이 좋았다고 했는데, 뭐가 재미 있었어요?

정 화: 그 때 어렸을 때는 돈 없이 무엇을 하고 놀아도 재미있었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오락실 같은데 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재미있고, 그다음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뒤에 가서 막 술먹고 그래도 재미있고, 뭐 그냥 그때는 돈도 많이 들고 다녔던게 아니라 몇천원 들고 다니면 어디 갈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노는게 그냥 같이 있는게 좋고 재미있고, 친구집에 가서 거기서도 지냈어요.

(3) 강화: 본드 흡입

정화가 처음 본드를 하게 된 것은 평소 함께 어울리던 동네 오빠들 집에 친구와 놀러갔다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환각상태에서 겪게되는 모

든 일들이 정화에게는 재미있었고, 이런 재미가 계속해서 본드를 하고 싶은 생각에 들게 했다고 했다. 같이 어울리던 오빠들은 전부터 본드를 흡입하고 있었고 정화도 오빠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본드를 하게 되고, 본드가 하고 싶어 모여들 때도 있다고 했다. 처음 시작은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였지만 환각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미있고 신기해서 본드를 계속하게 된 것이다. 본드를 하고 난 뒤에는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몇 일 동안 입안에서 냄새가 올라오며, 점차 본드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자 입맛이 없어지고 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본드는 다른 약물과 달리 흡입 후에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정화도 역시 이 냄새 때문에 어머니에게 본드를 흡입한 것을 들켰고 이 사실을 알고 난뒤 어머니는 정화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때리기도 했다고 했다. 계속적인 본드흡입으로 정화는 심신에 고통을 느껴왔지만 끊는 것이 쉽지 않아 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몰래 본드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정 화: 그때가 학교 막 그만두고 아는 친구랑 오빠집에 놀라갔는데 이상한 것 그때 처음 봤어요. 이상한 것을 봉지에 넣어서 막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깐 눈이 다 풀려 가지고 이상하게 하고 있으니, ‘오빠 뭐야 지금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호기심에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 친구가 그냥 한번 빨았는데 막 이상한 게 앞에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게 다 상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두 번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그냥 재미있었어요.

연구자: 뭐가 재미있었어요?

정 화: 그냥 앞에 사물이. 원래 의자가 있으면 의자로 안보이고 다른 걸로 보이고.

연구자: 어떤 걸로 보여요?

정 화: 몰라요. 그냥 상상하면 상상하는 대로 보여요. 앞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게 재미있어가지고. 안하는 사람은 안보이고 저 혼자만 보이는 것. 내가 손에 꽃이 있다고 생각하면 꽃이 있는 거고. 그런식으로 그런게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하는 거죠.

(4) 촉진: 부모님의 별거

정화의 부모님은 현재 별거중이다.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정확한 별거 이유를 묻지도 못해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짐작만할 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별거는 하였지만 정화는 아버지와 동생을 보러 이주에 한번 정도는 아버지께 찾아간다고 했다. 정화는 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엄마는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정화와 함께 살고 있다. 만약에 부모님의 재결합이 힘들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다고 했다.

정화는 가끔씩 “옛날에 우린 되게 좋았어요”라는 말을 했다. 과거의 가족을 회상해보면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고 했다. 정화는 이전 가족 모습을 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별거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어머니의 가출에 이은 후 별거, 정화의 자퇴에 이은 본드 흡입의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발생해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 화: 옛날에 우린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되네요.

연구자: 부모님이 왜 별거를 하셨나요?

정 화: 잘 몰라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께 그냥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도 마음 아플 것 같고, 아빠한테는 아예 그런 얘기 꺼낼 생각도 안하고 맨날 힘들어 보이니까.

연구자: 아빠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 화: 아빤 남자니까 좀 집에 있으면 제 동생은 청소도 안하고 여동생이 있어도 다 아빠가 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못하고 이주에 한 번 집에 가서 보고 그러는데 갈 때 마다 살빠져 있고, 오랜만에 보니까 늙은 것도 보이고, 그럴 때 옆에서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챙기니까요.

(5) 종결: ‘잘림’

정화는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를 하였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학교를 가지 않고 모여서 놀았다고 했다.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니깐 계속 가기 싫어 퇴학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자퇴서를 학교에 냈다고 했다.

연구자: 언제 학교 그만뒀어요?

정 화: 고등학교 1학년때요.

연구자: 왜 그만뒀어요?

정 화: 그때는 논다고. 노는거 너무 좋아해서. 음 그때 학교 그만 두면서 놀았어요.

연구자: 그때부터 계속 놀았어요?

정 화: 네. 그때 복학을 하던지 뭐라도 배웠어야 했는데.

(6) 중도탈락 이후의 삶

정화는 중퇴이후 본드를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돼서 다시 본드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본드 흡입을 하고 환각상태에서 무리 중 한 남학생이 이웃집 사람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사람을 찌를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위협을 느낀 이웃집 사람의 신고로 오게 된 경찰에게 본드 흡입 사실이 발각되고 경찰서에 모두 잡혀가게 되었다. 이후에 정화와 정화의 친구는 약물이 처음이라 2년 6개월이라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고, 함께 있었던 세명의 오빠들은 이전에도 약물 경험이 있어 소년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정화가 본드 흡입을 그만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아서라고 했다.

연구자: 그때 걸렸을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 화: 그때 걸려서 파출소 갔을 때만 해도 약간 얼떨떨해가지고. 난 또 그렇게 큰 사건 때문에 가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너희 했어, 안했어’ 큰소리로 얘기 하니깐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우리 들

어가는거 아냐?’ 친구랑 저랑 처음 걸려가지고 무서워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부모님 다 와가지고 우리는 초범이라 보호관찰 받고 끝나고, 오빠들은 그런게 많아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연구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정 화: 그 기간 동안에는 암전하게 지냈죠. 집에 있거나 친구들 만나서 시내나 놀러나가고, 아르바이트나 짬짬이 하면서 나쁜 짓하면 저도 이제는 바로 들어가니까요.

정화는 보호관찰 기간동안에도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했다. 미래에 대한 준비없이 놀기만 했던 그 기간을 지금은 무척 후회하고 있다. 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 복학의 기회,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것, 주변의 조언과 권유로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많은 기회가 있었고, 주변의 권유와 조언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말들이 다가오지 않았고, 주변사람들의 말을 담아 두지 않았다고 했다. 면접기간 동안 정화가 강하게 보인 감정은 후회였고, 다시는 과거의 일들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연구자: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정 화: 네 무섭죠. 맨 처음엔 보호관찰이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서 처음에 선생님한테 무서워가지고 맨날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연구자: 그 선생님은 뭐하시는 분이예요?

정 화: 상담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 지내나 물어보고 얼굴도 보고 전화도 하고. 거의 제가 그냥 답답할 때 전화도 하고 같은 여자라서 오랫동안 만나니까 이제 벽이라는 게 없어요. 선생님 안같아요. 그냥 전화해서 몸이 안좋거나 이럴 때도 전화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연구자: 그 선생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 화: 네 그냥 마음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는게. 제가 이때까지 일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만나면 맨날 좋은 얘기 해줘도 그게 맘대로 안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아 그때 선생님 말씀 들었으면 또 후회하고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연락이 안되면 음성도 남겨놓고 걱정되니까 그런게 고맙고

그래서 정이 좀 들었어요.

연구자 : 그때 생각하면 답답해요?

정 화 : 음.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요. 그때 복학을 하던지 뭐라도 배웠어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노는 것도 그만할 때도 됐으니까 뭐라도 하나 알아보면서 배워야죠. 나중이라도. 계속 이렇게 놀거나 아르바이트 한다해서 제가 늙어서도 아르바이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고 배워놓으면 나중이라도 또 필요하겠죠.

3. 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

학교중도탈락은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 여러 가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가정환경의 영향은 어린시절부터 재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진이는 부모님의 구타와 해체된 가족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했으며, 그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다. 재진이의 어머니는 현재 생사불분명 상태로 친척들은 재진이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연락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2년 6개월 동안 소식을 알 수 없다. 재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가족 내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버지가 함께 살았다고는 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진이는 가족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고, 공교육이 시작된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행동을 했다고 했다.

재진이와 은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태도를 보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하고 비행에 빠져들어 가출로 이어지고 가출은 결국 무단결석으로 이어져 중도탈락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자: (진호를 바라보며) 그럼.. 여기 친구도 학교 그만둔 적 있었던 거예요?
재 진: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진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퇴, 중퇴!
연구자 (진호를 바라보며) 그럼 여기 친구는 왜 가출했었어요?
진 호 집에가기 싫어서요
재 진 그냥 우리 가족은 다 싫었어요.
연구자 부모님은 왜 싫었어요?
재 진: (잠시 침묵) 아버지가 월급을 타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팍팍 쓰니까요.
연구자: 아버님이?
재 진: (고개를 끄덕이며) 손찌검 하는 것도 싫었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맨날 잔소리 하고, 다 알아듣는데.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잠시 후) 엄마는 또 아빠 모은 돈 갖고 날랐어요.
연구자: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은 미: 엄마는 원래 내 생활에 무관심했기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2) 교사의 지지부족: 무책임한 교사

학교의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은 자연히 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꺼려하고 멀어지게 된다. 특히 실업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인문계 학교보다 학습 분위기 저하로 인해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진의 친구는 상고를 다니는데 상고에서는 결석 및 가출이 아니라면 모범수준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재진이 역시 친구의 생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 현: 전 아니예요.
재 진: 한번도 그런 적 없어요. 자칭 모범생. 아 한번 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재 진: (옆을 보고 웃으면서) 그냥 땡땡이 치고.
재진, 대현: 결석이 아니고 땡땡이. 상고에서 그 정도면 모범수준이지요.

중퇴 이전에 교사들의 지지부족으로 학생들은 아무런 자각 없이 중퇴를 결정하게 된다. 낙인론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하여 구조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에 그리고 의도보다는 반작용

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교사들은 비행을 저지르고 결석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주관적으로 ‘문제아’라는 낙인을 찍은 후 그들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교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할애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부정적 반작용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돌아온다.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중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책임한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떠밀리듯 중퇴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재 진: 우리 담임선생님이 새로 와가꼬요, 첫 날에, 원래 개학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쌤도 못보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래가꼬.

연구자: 그럼 3월달예요?

재 진: 강제자퇴는 담임선생님도 찍히니까. 지도과에.

재 진: 찍히니까 이제, 강제자퇴는 못시키겠고.

연구자: 자퇴를 권유하는 거예요?

재 진: 권유한 것도 없고요.

연구자: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스스로 한거예요?

재 진: (고개를 끄덕임)

연구자: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은 미: 상담 선생님을 제외한 학교 선생님은 사고만 치던 내가 나가는 것을 내심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 몇 명은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3) 또래집단과의 비동질성: “애들이 싫어하는데요...”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 하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한다(구본용, 2000).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친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조아미, 2002). 그러나 가출 및 비행이후 학교에서 친하던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가출 청소년 역시 아이들과는 어울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또래 집단에 대한 비동질성으로 인해 학교

에 부적응하게 된다.

재 진: 학교에서 애들이 또 뭐라 해요.

연구자: 뭐라 한다는게 어떻게 뭐라는 건데요?

재 진: 그러니까 좀... 애들이 싫어하는데요.

연구자: 안 좋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재 진: 네. 안 좋게 이야기하고.

연구자: 안 좋게 이야기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 안 좋아 하거나,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좋은 감정이 있는데 (네가) 안좋아 지고 있다 싶으니까 그래서 안 좋은 말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럴꺼 아니에요.

재 진: 음..... 그러니까 음.... (잠시 생각)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다 친하거든요. 원래. 친한데 이제. 가출하고 학교 가니깐요, 적응도 안되고 애들 때문에.

(4) 유해환경 노출

청소년은 보호와 육성의 주체이며 따라서 성장·발달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및 예방장치가 필요하다. 이들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대상으로 성장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유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 학교, 사회의 연결고리가 절연되면서 가정이나 학교의 청소년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이들을 유해환경으로 내모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김진화 외, 2002).

재진이의 경우에도 유치장에서 선·후배가 모일만큼 비행집단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네 형들이 절도 기술을 가르쳐 주어 비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재 진: 집 털고.. 할말은 아니지만... (머쓱하게 웃으며) 전화기도 많이 뒤킵고.

연구자: 뒤킵는다고요?

재 진: 예. 전화기 뒤집었다가 다시 세우면 돈 나오거든요. 그 동전 넣는 공중전화기 있잖아요.

연구자: 아~ 그거 어떻게 뒤집는데요?

재 진: 딱 뒤집었다가 세우면 돈이 나오거든요.

연구자: 그런거 어떻게 알았어요?

재 진: 가르켜 줬는데. 동네 형들이.

연구자: 주변에 자퇴한 친구들이 있어요? 있다면 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해요?

은 미: 많이 있어요. 여자 애들은 보통 나처럼 티켓 다방에서 일을 하고, 남자 애들은 호스트바나 나이트 뺑끼를 해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기도 해요.

(5) 청소년 지지 환경 부족 : 상담교사의 의미적 부재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그들을 지지할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담 교사의 부족과 또래 상담 집단의 교육 부족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 보호 기관의 절대적 부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더욱 비행 환경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연구자: 고민이 생기면 상담할,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상담할 사람 있어요?

재 진: 아뇨.

연구자: 응. 그랬군요. 가출하고 난 뒤에 뭐했는데요?

재 진: 그냥, 돌아다니면서 애들 돈뺏고....(멋적은 듯 웃음)

연구자: (함께 웃음)

재 진: 아무 교회에서나 자고.

연구자: 아. 교회에서 자고. 그런 생활 한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또 붙잡혀오고, 또 나오고...그런거예요?

재 진: 한마디로 폐인생활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이전과 이후의 생활세계를 설명함에 있어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사회적인 맥락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는 학교중도탈락 문제의 복잡성을 정돈하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탈락 청소년을 짚린 청소년과 때려친 청소년으로 유형화하여 중도탈락 과정을 살펴보았고, 중도탈락이후의 삶의 적응과정을 중도탈락 유형에 따라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짚린 청소년과 때려친 청소년의 유형구분은 종전의 자발적 학교중도탈락과 비자발적 학교중도탈락으로 통용되는 구분과 유사하다(김혜영, 2002).

둘째,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생활세계 탐색을 통해 짚린 청소년과 때려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즉 학교중도탈락 과정의 위기적 사건 또는 결정적 계기, 기질, 강화, 촉진, 종결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중도탈락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짚린 청소년’이 되기까지에서 정착형(취업형)은 결정적 계기: 비행,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강화: 방임적인 양육태도, 촉진: 잦은 가출, 종결: ‘짚림’, 중도탈락 이후의 삶의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비정착형은 결정적 계기: 비행 또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강화: 방임적 양육태도, 촉진: 게임중독, 종결: ‘짚림’, 중도탈락 이후의 삶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때려친 청소년’이 되기까지 정착형(진학형)은 결정적 계기: 대학입시를 위해, 기질: 자존심이 강한 아이, 강화: 민주적인 양육태도, 촉진: 주위사람들의 신뢰와 적극적 후원, 종결: 자퇴는 도피가 아니 도전, 중도탈락 이후의 삶의 구조적 요인을 탐색할 수 있었고, 정착형(취업준비형)은 결정적 계기: 비행 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 기질: 자기통제력부족,

강화: 방임적인 양육태도, 촉진: 또래동조, 종결: ‘때려침’, 중도탈락 이후의 삶의 구조적 요인을 보였다. 비정착형(보호관찰)은 결정적 계기: 친구와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 기질: 자기통제력 부족, 강화: 본드 흡입, 촉진: 부모님의 별거, 종결: ‘잘림’, 중도탈락 이후의 삶의 구조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방임적 양육태도, 교사의 지지부족: 무책임한 교사, 또래집단과의 비동질성: “애들이 싫어하는데요”, 유해환경에 노출, 청소년 지지 환경 부족 : 상담 교사의 의미적 부재로 나타났다. 통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의 가족·학교·사회에 대한 유대 즉 사회적 통제는 개인에게 사회적 결속감이 결여될 때 이탈 현상이 야기된다. 학교·가정의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규제가 약화될 때 학교중도탈락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김준호 외, 1993).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나 교사의 지지부족, 사회에서의 청소년 지지부족은 통제력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이 무단결석과 가출, 전자기업기 등의 비행, 약물중독, 게임중독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중도탈락이후의 생활에서도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여 소외되어 있어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고 지내고 있다. 즉 통제이론의 관점에서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은 사회적 결속감의 결여, 사회적 지지망의 부족과 유대 약화가 중도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중도탈락자의 학교 재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징계절차를 보다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숙영 외(1997)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학과 같은 학생징계는 학생의 학교생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며, 이후 학교에 복교하거나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가

벼운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의 결정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송윤주, 2002; 임구자, 2003; 조아미, 2001)에서도 제안된바 있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특수한 보호와 시설마련을 필요로하고 있다.

셋째, 중도탈락자에 대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장민규, 2002; 주금옥, 2002; 한지원, 2002).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한 청소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서 학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은 좌절되기 쉽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복교에 대한 상담과 복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잠재적인 중퇴청소년들을 조기진단하고 예방상담을 지원해야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부적응적 요소가 학교 자체 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밝혀 제거 또는 개선하는 일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확립하고, 기존의 중퇴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퇴 청소년에 대한 사후대책,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청소년의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에서부터 사회문화적 문제까지 통합적인 사회복지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서울과 울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중도탈락 과정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중도탈락한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중도탈락의 현상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주제보자와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청소년들의 심리문화적인 기제를 좀더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교육월보, 181, pp. 53-61.
- 구본용(2000).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등교거부. 경기: 경기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식(1997a). 중·고교 중퇴생 문제의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7(1), pp.1-24.
- 김경식(1997b).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pp.115-138.
- 김경식(1998a). 생애사적 연구를 통한 고교 중퇴생 삶의 문화탐구. 교육사회학연구, 8(1), pp.123-144.
- 김경식(1998b). 중·고교 중퇴 청소년의 중퇴 이전과 이후의 비행비교. 중등교육연구, 41, pp.1-18.
- 김진화 외(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박수민(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지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1999). 학교환경이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2001). 중도탈락 청소년 종합대책. 중도탈락 청소년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공청회 자료집, pp.19-39.
- 송복 외(1996). 학업중퇴자 연구 - 실태와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송윤주(2002).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재적응 요구. 진주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오현애(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미경 (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유연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림(2000). 실업계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현(2001). 학교의 비행청소년 선도 및 예방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0). 학교중단 청소년의 중퇴이후 적응결정요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숙영 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학업중도탈락과 청소년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23.
- 임구자(2003). 학업중단학생들의 특성과 대안학교의 인식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 석사학위논문.
- 정지인(1997).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3), pp.1-22
- 조혜정(1997).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최보문(2000). 학교붕괴 현상과 부등교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39(6), pp.969-986.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표갑수 (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중퇴자와 재학자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1), pp.127-147.
- 한지원(2002). 학업중퇴청소년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2(1), pp.109-133.
- Astone, N. M., & McLanahan, S. S. (1994). Family structure, residential mobility, and school dropout, *A research note. Demography*, 3, pp.575-584.
- Franklin, C.(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pp.338-343

- Levin, H. M.(1972). *The costs to the nation of inadequate education*(Study prepared for the select committee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U. S. Senate). Washington, D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evine, R. S.(1984). An assessment tool for early intervention in cases of truancy, *Social Work in Education*, 94, pp.135-181.
- Rumberger, R. B. (1987). High school dropouts: A review of issues and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2), pp.101-121.

ABSTRACT

A Study of the Process of Adolescents' Dropout from School and Social Adaptation

Sung, Yun-Sook*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process of adolescents' dropout from school and social adaptation, and better understanding dropout from the social context. Employing an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the study carried out a pre-interview, in-depth interview with main subject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6 adolescents dropout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various variables were involved in the adolescents' decision making process of dropout from school. The dropout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the two categories: those who voluntarily dropout from school and those who were forced to dropout from school. The process of social adaptation after dropout was categorized into settlement type and unsettlement one on the basis of the two dropout categories. Dropout was an outcome of the complex process of structural factors which consisted of a critical moment or crisis, personality, reenforcement, promotion and conclu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context, the structural factors of dropout included non-interventionist parenting styles, irresponsible teachers, exclusion of the peer, exposure to harmful social environment, lack of social support and counseling teachers.

Kew Words : Adolescents' Dropout from School, Process of Dropout, Process of Social Adaptation, Ethnography,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 10월 30일, 심사일 : 12월 6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